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언론 훑어보기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301호
 전화 051-802-0916
 홈페이지 www.bssim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문서번호	지역언론훑어보기2022-02
●수 신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발 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제 목	[지역언론훑어보기] 부산일보 여론조사 결과 보도
●모니터기간	2022년 2월 22, 23일
●날 짜	2022년 2월 25일

대통령선거 부산지역 여론조사 결과, ‘부산’ 누락해 제목 뽐은 부산일보

부산일보
 1946년 9월 10일 창간 전화 051-661-4114 제 23683 호 1면 busan.com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등록 1월 22일)

이재명 32.4 윤석열 52.0 안철수 7.4

대선 D-15 부산지역 여론조사
 윤, 이에 오차범위 이상 앞서 지지율 90% '지지 후보 안 바뀌' '표 쪼개' 마무리 단계 진입한 듯 야권 '단일파' 막판 변수 전망

여야가 3·9 대선의 최대 쟁목지역으로 손꼽는 부산 지역 여론조사에서 국민 의망 윤석열 대선후보가 52.0%의 지지율을 보이며 대선후보로 야권은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지지율은 이 지역 '정권교체론' (54.4%)과 '국정 안정론' (32.7%)에 거의 근접했다. 특히 부동층 비율이 2.3%이고, 두 후보 지지율의 90%가량은 투표일까지 지지 후보를 바꿀 의향이 없어 표 쪼개기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윤 후보 지지율의 60% 이상이 국민연방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안 후보 지지율의 40%가량은 지지 후보 교체 가능성을 시사해 '단일화' 문제가 막판까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기사 4·5호 여론 조사는 (서울신문)가 지난 19~20일 한국사회 여론조사(KSSCI)에 의해 부산 지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선후보 지지율은 윤, 이 후보에 이어 안철수 7.4%, 정영당 3.8%, 정 3.8%, 세도윤 0.7%, 기타 후보 1.4% 순이었다.

부산 4개 권역으로는 금정해운대권

부산 지역 대선후보 지지율

이재명	32.4%
윤석열	52.0%
안철수	7.4%

(매일-금정-기정)에서 윤 후보 54.9%, 이 후보 30.8%로 격차가 가장 큰 반면, 강서-동래권(강서-사상-시하)은 윤 후보 48.5%, 이 후보 34.8%로 격차가 가장 좁았다. 연평대권은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섰는데, 70~79세대로 부성향 50대(윤 45.3%·이 23.7%)와 30대(윤 52.3%·이 27.2%)에서는 윤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투표일 전에 지지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는지는 질문에는 85.3%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응답했고, '바꿀 수 있다'는 12.2%로 나타나 두 후보 지지율의 표상은 거의 굳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후보 지지율 85.3%, 윤 후보 지지율 92.4%가 계속 지지 의사를 밝힌 반면 안 후보 지지율 41.2%는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해 대선후보.

이번 대선의 성격과 관련, '현 정부 국정 운영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54.4%,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2.7%로 나타나 윤·이 두 후보 지지율과 엇비슷했다. 그동안 실시된 대선 부산 지역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지지율은 각각 국민연방과 정권교체론 지지층에 큰 영향 '비효율'이라는 비판에 진보·보수 진영 표심을 다 흡수하지 못했다. 이는 분석이 제기된 것이다.

20일 안 후보의 '결함' 선언으로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야권 후보 단일화의 경우, '필요하다' (42.7%)와 '필요하지 않다' (45.0%)는 응답이 반으로 갈렸다. 윤 후보 지지율의 62.0%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이 후보 지지율 85.5%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안 후보 지지층에서는 필요, 불필요 응답이 각각 46.6%, 42.5%로 나타났다.

윤 후보로 단일화 때 가장대권에서 윤·이 후보 지지율은 55.2%와 33.0%, 안 후보로 단일화 때 윤·이 후보 지지율은 49.0%와 29.7%로 나타나 윤 후보로의 단일화 효과가 조금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당 43.7%, 민주당 31.2%, 국민의당 8.8%, 정의당 5.0% 순이었다. 자기 대입률의 최후순 3개로는 '부정부패 척결'이 28.4%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 '노동시장 안정' 18.5%, '지역균형발전' 12.9%, '영양권 강화' 12.5%, '양극화 해소' 11.0%, '차별 철폐' 7.2%, '연방도 평화 정착' 6.0% 등이 뒤를 이었다. 경남·울산 지역 여론조사는 22일 공개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P)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정훈 기자 jh@busan.com)

△ 부산일보, 2/22, 1면

부산일보는 2월 22일 자 1면 머리기사로 <이재명 32.4 윤석열 52.0 안철수 7.4>를 실었다. 후보의 이름과 여론조사 결과 수치만을 나열해 후보 간 우위를 드러낸 전형적인 경마중계식 보도였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보도의 문제는 제목에서 ‘부산’을 누락해, 부산지역만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여론조사 결과로 오인하게 유도했다는 점이다. 제목만 읽는 제목 독자가 있다는 점, 내용보다는 수치에 집중하게 되는 여론조사 기사였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아쉬운 제목이 아닐 수 없다. 같은 날 공개된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고, 앞서고, 강세가 두드러지고...

이재명-윤석열 후보 줄 세우기로 점철된 여론조사 결과 보도

4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제 23684 호
대선 D-14 경남지역 여론조사
부산일보

‘5060’ 윤석열 압도, 40대에선 이재명이 10.5%P 우위

윤 지지도, 부산·울산보다 높아
동부권, 이 지지율 경남 내 최고

안철수 지지 8.6, 심상정은 3.2%
84.5%가 “지지 후보 계속 지지”

이번 경남지역 여론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지지도가 같은 동남권인 부산과 울산에 비해 다소 높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비교적 낮은 점이다. 또 윤 후보가 40대와 민주당 지지층, 진보성향 등 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교체 의향도 비교적 높지 않았다.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 SOI)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경남지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9~20일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63.1%) 후보가 이재명(29.5%) 후보를 23.6%포인트(P)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안철수(8.6%)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3.2%) 후보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연령별 대선후보 지지도 (단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2일 인천시 남동구 토대오거리광장에서 열린 인천 집중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의원기자단

수준에 ± 3.1%포인트다.

부산과 마찬가지로 윤 후보가 대부분 연령층에서 이 후보를 앞섰지만 40대에선 두 사람의 지지도가 역전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60세 이상(은 69.3%, 이 19.2%)과 50대(은 56.7%, 이 29.5%)에선 윤 후보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우선 성별 조사에선 윤 후보가 남녀 모두 이 후보를 앞섰지만 여성(50.0%)보다 남성(56.3%) 지지가 조금 높았고, 이 후보는 남성(29.6%)과 여성(29.5%) 모두 윤 후보에게 크게 뒤졌다.

부산과 마찬가지로 윤 후보가 대부분 연령층에서 이 후보를 앞섰지만 40대에선 두 사람의 지지도가 역전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60세 이상(은 69.3%, 이 19.2%)과 50대(은 56.7%, 이 29.5%)에선 윤 후보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우선 성별 조사에선 윤 후보가 남녀 모두 이 후보를 앞섰지만 여성(50.0%)보다 남성(56.3%) 지지가 조금 높았고, 이 후보는 남성(29.6%)과 여성(29.5%) 모두 윤 후보에게 크게 뒤졌다.

관영별 조사에서 보수 성향이 강한 서부권은 물론, '진보의 성지'로 불렸던 동부권도 모두 윤 후보의 지지도가 높았다. 보수성이 가장 강한 서부내륙권(거창·산청·함양·함천·의령·청년·함안군)에선 윤 후보(63.3%)가 경남 전체 평균보다 10%P 이상 높았고, 이 후보는 16.9%에 불과했다. 서부해안권(진주·통영·사천시, 고성·남해·하동군)에서도 윤 후보(60.3%)가 이 후보(23.7%)를 크게 앞섰다. 경남의 중심으로 비교계 중도

성향이 강한 관영권에서도 윤 후보(56.8%)의 지지율이 이 후보(31.4%)보다 크게 높았다. 동부권(김해·양산·거제·밀양시)에선 이 후보(35.0%)의 지지율이 경남 전체에서 가장 높았지만 그래도 윤 후보(42.9%)에게는 뒤졌다.

보수 성향 유권자의 77.1%가 윤 후보를 지지한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의 이 후보 지지율은 64.3%에 그쳤다. 중도 성향 응답자층에서도 이 후보(29.9%)보다 윤 후보(50.2%) 지지율이 더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의 이 후보(86.2%) 지지율과 국민의당 지지층의 윤 후보(88.9%) 지지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다만 정의당의 지지층에서 심상정(24.1%) 후보보다 이재명(46.4%) 후보 지지율이 더 높은 점과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윤석열(61.3%) 후보가 안철수(30.3%) 후보를 앞섰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지 후보 교체 의향을 묻는 질문에 84.5%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고, 12.7%는 “바꿀 수도 있다”고 말해 경남지역 대선 구도도 차츰 굳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29세 유권자는 계속 지지하겠다는 답변(75.2%)이 크게 낮아 이들의 투표 관심이 주목된다.

권기호 기자 kik@kbsan.com

△ 부산일보, 2/23, 4면 (파란색: 이재명, 분홍색: 윤석열)

부산일보는 지난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부·울·경 지역 성인 2,802명(부산 1,000명, 울산 801명, 경남 1,00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관련 기사는 모두 14건이었다. 부·울·경 지역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지역별, 연령별, 성별, 정치 성향별로 쪼개어 세부 지지율을 모두 기사화했다. 사실상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남이나만 다를 뿐 대동소이한 기사 내용이었다.

무엇보다도 부·울·경 지역에서의 역대 대통령 득표율을 보면, 지역 민심은 그 방향이 비교적 뚜렷하다. 그렇기에 부·울·경 지역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그 의도가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현재 야당인 후보의 우위 일색으로 기사가 채워질 수밖에 없다.

경남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전한 <‘5060’ 윤석열 압도, 40대에선 이재명이 10.5%P 우위>(2/23, 4면)는 총 26개 문장 중 절반 이상인 15개 문장에서 야당 후보의 우위가 언급됐다.

지난 15일부터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지지율을 토대로 양강 구도를 더욱 견고히 하는 여론조사 보도보다는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후보들의 이슈에 대한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는 보도가 필요하다.